

당신이 **혹**하는 사이

시즌 4

All New Return!

‘미스터리’로 소재 확장, MC는 전현무

〈당신이 혹하는 사이〉(연출: 김규형, 장경주)가 시즌 4로 새롭게 돌아온다. 〈당혹사〉 시즌 4는 세상에서 가장 혹하는 이야기를 찾는 새 멤버들과 함께, 더 새로운 주제와 방식으로 시청자들을 찾아갈 전망이다.

새 MC이자 화려하게 단장된 대저택 아지트의 주인으로 전현무가 낙점됐다. 맛깔 나는 입담과 깔끔한 진행 능력을 지닌 그는, 첫 녹화부터 녹화 시간을 훌쩍 단축시키는 스피디한 진행으로 멤버들의 환심을 샀다. 여기에 냉철하지만 만만치않은 푸근한 영화감독 변영주, 엉뚱한 동심(童心)과 중년의 진심을 지닌 배우 봉태규, 예능 블루칩으로 핫한 모델 겸 팔랑귀 주우재가 고정 멤버로 함께한다.

시즌 4에서 가장 달라진 점은, 미혹(迷惑)과 불혹(不惑)의 경계에서 영주와 태규가 상반된 스토리텔링을 공방(攻防)처럼 전개한다는 것이다. 주제에 대해 혹할 만한 근거와 혹하지 않는 근거를 미리 준비해온 영주와 태규가 게스트의 마음을 얻기 위한 이른바 ‘설득 게임’을 펼친다. 여기에 원조 팔랑귀였던 우재가 유튜브 등 세간에 떠도는 이야기들을 물어와 가세하고, MC 현무는 이들을 중재하며 전체 이야기를 완성한다.

또한 이야기마다 새로운 얼굴들이 게스트로 참여한다. ‘소식좌’로 요즘 핫하면서도 〈당혹사〉 전편을 정주행할 만큼 〈당혹사〉에 진심인 힙합 프로듀서 ‘코드쿤스트’, 진지하게 외계 생명체를 믿는 엉뚱발랄 블링블링 이달의 소녀 ‘췌’, ‘러시아 재벌 의문사’라는 주제를 잘 모르고 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가도 할 말은 다 하고 돌아간 배우 ‘이미도’ 등 매회 다채로운 게스트가 등장한다. 이외에도 걸그룹 소녀시대의 톡톡 튀는 매력 ‘씨니’, 단발 변신 후 첫 스케줄을 〈당혹사〉로 하고 싶었다는 배우 ‘신소율’ 등이 출연, ‘혹’하는 이야기에 ‘혹’ 빨려들어 갈팡질팡하면서도 솔직한 모습들을 선보인다.

시즌 4에서 또한 달라진 점은, 소재를 ‘음모론’에 국한하지 않고 ‘미스터리’로 확장한다는 것. 이미 알려진 옛날이야기를 다시 반복하는 게 아니라, 최근 뜨겁게 회자되면서도 여전히 강렬한 의문이 남아있는 기이한 사건과 현상, 괴담 등을 〈당혹사〉만의 기준으로 엄선한다. 그리고 ‘혹한다 vs. 혹하지 않는다’, ‘우연에 불과하다 vs. 숨겨진 배후가 있다’와 같이 공방의 걸을 살리고, 취재를 통한 실체 추적과 실험을 통한 검증을 강화한다.

〈당신이 혹하는 사이〉 시즌 4는 8월 27일(토) 밤 8시 35분 첫 방송된다.



당신이 **혹**하는 사이

전현무
변영주
봉태규
주우재

그리고 그들의 친구들



“좋아하다 보면 길이 만들어진다”

- 상반기 작품상 우수상 파워FM <배성재의 텐> 유용준 PD

<배성재의 텐>은 어떤 내용이며 타깃은 누구인가?

‘남심 저격’이라는 캐치 프레이즈 아래 남성들이 좋아하고 공감할 수 있는 소재를 다루고 있는데, 의외로 여성 팬들도 많다. 청취율 조사기간 동안 본방을 듣고 있는 청취자를 전화 연결해보면 심심치 않게 여성 청취자를 만날 수 있다. 남자들의 이야기이지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 즐겨 듣는다고 한다.

인기 비결은?

DJ의 탁월한 진행 능력이다. 녹음의 전 과정을 카카오톡으로 인터넷 생중계하는 특성상 모든 상황이 노출되어 있고 청취자들이 채팅으로 반응할 수 있는데, 배성재 DJ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재미의 포인트로 활용한다. 이런 청취자들과의 소통 능력이 이른바 ‘배텐러’라는 팬덤과 수없이 많은 밈, 짤을 만들어 내고 많은 별명이 DJ에게 붙여진 이유일 것이다.

말은 지 얼마나 됐으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햇수로 3년째, <배성재의 텐> 최장수 PD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론칭 후 실시간 채팅이라는 것이 라디오 녹음에 도입됐을 때만 해도 인터넷 스트리밍이 매우 새로운 문물이었지만, 지금은 너무도 익숙한 방식이라 플랫폼상의 신선함을 주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배성재의 텐>이 뉴미디어의 흐름에 먼저 올라타 새로운 라디오 모델을 제시했던 것처럼, 앞으로 바뀔 미디어 환경에 맞춘 프로그램의 진화를 장기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유난히 DJ와 팬들의 사이가 가깝다.

배텐러들은 배성재 DJ를 ‘대장’이라 부르며 따른다. 방송 중 청취자들이 채팅으로 배성재 DJ를 여러모로 놀리고 짓궂게 대하곤 하지만 배성재 DJ에 대한 깊은 애정에서 우러나는 것이고, 배 DJ 역시 이를 즐겁고 유쾌하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DJ와 청취 팬덤이 격의 없이 소통하는 모습을 보면 배디와 배텐러들은 일종의 동반자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2019년 배성재 DJ가 연예대상에서 DJ 부문 상을 수상했을 때 배텐러들에게 가장 큰 감사를 돌렸는데, 제가 봤을 때 분명 100% 진심이었다.

자기소개를 부탁한다.

2014년에 입사했다. 라디오 키드로 자라왔지만 정작 라디오 방송에서 PD가 무슨 일을 하는 건지는 모르고 살았다. 우연히 외국어 학원에서 타 방송에서 일하는 라디오 PD분을 알게 됐는데, 그분이 학창시절 녹음 파일을 전부 모아놓을 정도로 열심히 듣던 방송의 담당 PD였다. 라디오 PD를 지원해 보라는 그분의 조언에 인생의 행로가 바뀌어 버렸다.

특이하게 <워클리 파이트 클럽>이라는 격투기 관련 팟캐스트를 제작하고 있다.

꽤나 오랫동안 주짓수와 킥복싱을 해왔고 앞으로도 쭉 할 것이다. 운동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선수들을 덕질하게 되었고, 격투기 관련 콘텐츠도 섭렵하게 됐다. 찾아보면 볼수록 더 알고 싶은 것들이 자꾸만 생겨 직접 격투기 관련 콘텐츠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그쪽 업계에서 명망이 높은



이교덕 기자, 그리고 약대생이라는 특이한 타이틀을 지닌 전 UFC 손진수 선수를 섭외하여 방송을 하게 됐다. 처음에는 팟캐스트로 제작되었는데 올 초부터는 녹음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 유튜브로도 송출하고 있다. 격투기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프로그램이 되는 것이 목표다.

애서가에 글도 잘 쓰고, 운동도 잘하는 문무를 겸비한 PD라고 들었다.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일은?

조용한 데다 쉽게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인간이다. 다만 책도, 운동도 제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들인 것은 사실이다. 좋아하는 것들을 이용하여 무언가를 만들어내기보다 무언가를 계속 좋아하다보면 그 안에서 길이 만들어진다고 믿고 있다. 취미보다 더욱 사랑하는 것은 라디오이고, 그것을 계속 사랑하다보면 다양한 기회와 새로운 계기들이 찾아올 거라 생각한다. 사랑하는 것을 이어가면서 그것이 주는 기회와 신호들을 놓치지 않도록 성실히 살아가려고 한다.

풍부해진 무대와 다양한 볼거리



박봄×헤이즈×김필×정승환×정세운... 초호화 캐스팅



감성 리메이크 뮤직쇼 <싱 포레스트>가 8월 26일(금)에 첫 방송된다.

<싱 포레스트>는 MZ세대를 대표하는 뮤지션들이 198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는 명곡을 요즘 감성으로 재조명하는 힐링 음악 프로그램이다. 음악을 사랑하는 뮤지션들이 모여 매회 다른 주제의 선배 가수들의 명곡을 부르며 <싱 포레스트>만의 플레이 리스트를 만든다. 가수 백지영이 생애 처음으로 단독 MC를 맡아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라인업 또한 화려하다. 특유의 R&B 감성으로 2010년대를 강타한 걸그룹 2NE1 출신의 박봄과 애뜻함과 아련함이 녹아든 목소리로 대중을 사로잡는 ‘발라드 세손’ 정승환이 여름에 어울리는 청량한 사랑 노래로 찾아온다. 몽환적이고 매력적인 음색으로 ‘이별 장인’이라고 불리는 헤이즈와 <슈퍼스타 K 6>, <응답하라 1988> OST ‘청춘’ 등으로 ‘리메이크 장인’으로 소문난 김필은 레전드 가수의 명곡을 선보인다.

‘고막 남친’에서 만능 엔터테이너로 거듭난 요즘 대세 정세운과 최근 ‘Danger’ 활동으로 상큼 달콤한 매력을 뽐낸 걸그룹 woolah!(우아)의 나나, 인디 팝의 전성기를 이끈 바닐라 어쿠스틱이 선보일 무대도 기대를 모은다.

여기에 요즘 대세 아이돌 펜타곤과 C.I.X가 합류, 다재다능한 활약을 펼치며 대세 행보를 이어갈 전망이다. 또한 최근 성공적으로 솔로 활동을 마무리한 전 여자친구의 멤버 예린 역시 많은 음색이 돋보이는 무대를 보여줄 예정이다. 떠오르는 신예 로시와 시은은 색다른 음악으로 시청자들에게 인사드린다.

<싱 포레스트>는 오는 8월 26일 금요일 밤 11시 20분에 만날 수 있다.



“팀워크로 뭉친 전통의 강호... 전력의 비결은”

- 보도본부 보도국 사회부 법조팀

서초동. 보도국 법조팀원들의 근무지다. ‘여의도’가 한국 정치·금융의 중심지, ‘용산’이 새롭게 떠오른 권력을 함의한다면 ‘서초동’은 30년 가까이 한국 현대사의 소용돌이 한복판을 차지한 상징적 공간이다.

대검과 서울고검, 중앙지검, 대법원과 서울고법, 중앙지법 등이 있는 서초동은 법조팀의 ‘물리적’ 활동 공간이다. 여기에 헌법재판소(재동) 행정법원(양재동)도 주요 취재 영역이다.

물리적 공간과 무관하게 법조팀의 취재 영역은 넓어지고, 뉴스 소재도 다양해졌다. 예전처럼 검찰 수사를 중계하듯 보도하는 관행이 줄고, 대신 노동·환경·교육 등 여러 분야의 의미 있는 판결을 적극 소개하고 수사 외 콘텐츠를 발굴하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다. 최근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과 관련해 기존 소년보호 제도의 맹점을 파고든 ‘6호 시설’ 관련 연속 보도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다.

보도본부 차원의 디지털화에 발맞춰 <SBS 8 뉴스>에 방송되지 않는 법조 관련 콘텐츠도 디지털 텍스트나 유튜브 콘텐츠 등 다양한 포맷을 활용해 시청자와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다른 팀도 그렇지만, 법조팀 취재는 팀워크가 필수다. 특종 또한 팀플레이가 완벽히 이뤄져야 가능하다. 올해 초 이달의 기자상과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거머쥔 ‘이재명·김혜경 부부의 공무원 사적 동원 의혹’ 보도는 제보와 사실 확인 과정에 여러 팀원이 뛰어 들어 파급력 있는 보도를 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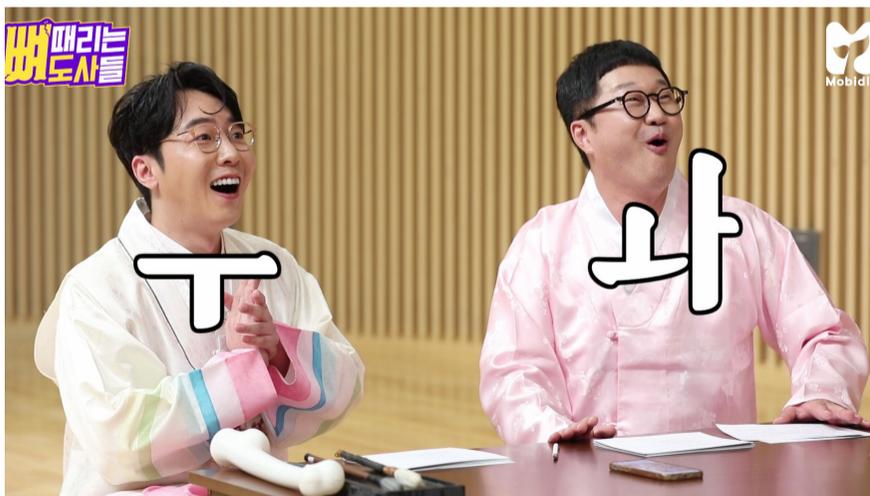
조성현 팀장을 비롯해서 법조 예비 전문기자로 8년간 법조 분야를 취재해 온 터줏대감 임찬종 기자, 탐사보도팀에서 ‘끝까지 파던’ 김관진 기자, 밑바닥 취재의 달인 홍영재 기자, 근성과 독심으로 취재원 마음을 사로잡는 박찬근 기자, 하루 평균 취재 전화 50통 안희재 기자, 아이템 보고(寶庫) 한소희 기자가 SBS를 대표해 전장(戰場)에서 뛰고 있다.



홍영재 한소희 박찬근 조성현 팀장 안희재 임찬종

모든 취재가 그렇지만 법조 취재는 특히 ‘사실’에 집착해야 하고, ‘사실’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SBS 뉴스가 지향하는 균형과 정치적 중립, 사회 통합 또한 전체 팀원들이 늘 마음에 두고 되새기는 가치다. 30년을 넘은 SBS 법조팀의 전통을 이어가고, 더 훌륭한 40년, 50년을 쌓아가겠다는 각오로 오늘도 7명의 팀원은 누군가를 찾아가고, 묻고, 대화하고, 기록한다.

오리지널 콘텐츠 **빠 때리는 도사들**, **랄랄의 대Feel일지** 론칭



모비딕이 새 디지털 오리지널 콘텐츠 <빠 때리는 도사들>과 <랄랄의 대Feel(大Feel)일지>를 공개했다.

<빠 때리는 도사들>은 말로 빠 때리는 지 도사 ‘지상렬’과 타로 좀 볼 줄 아는 이 도사 ‘이상욱’이 각 분야의 핫한 게스트를 초대해 타로라는 이색적인 장치로 고민을 해결하고 힐링을 선사하는 본격 타로 고민 해결 토크쇼다. 4,600만 팔로어를 보유한 세계적인 틱톡커 ‘원정맨’을 시작으로 래퍼 ‘정상수’, 먹방 유튜버 ‘히밥’, 래퍼 ‘나다’ 등 다양한 분야의 게스트들과 어디서도 볼 수 없던 거침없는 입담 배틀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협찬/브랜드를 위한 스피노프 <PPL 때리는 도사들>도 함께 선보이며 TV에서 미처 소화하지 못한 다양한 디지털 협찬 니즈도 소화해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랄랄의 대Feel(大Feel)일지>는 현란한 드립과 언변을 자랑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랄랄’이 인기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 사업가 등 크게(大) 성공한 느낌(feel)이 오는 이들에게서 듣고 싶은 이야기만 속삭여 자서전을 대필해 주는 스토리텔링 콘텐츠다. 대세 여행 크리에이터 ‘여락이들’, 차별화된 동계올림픽 중계로 화제가 된 만능 엔터테이너 ‘박재민’, 최근 유튜브 채널 양도로 화제가 된 신사임당 ‘주연규’ 등 젊은 시청자들에게 소구하는 게스트들이 출연해 랄 작가와의 텐션 높은 케미를 선보일 예정이다. 젊은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광고주들의 니즈도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빠 때리는 도사들>과 <랄랄의 대Feel(大Feel)일지>는 각각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모비딕 유튜브, 페이스북, 틱톡 채널을 통해 만날 수 있다.

'성남FC 광고후원금 뇌물 의혹 검증 연속보도' 이달의 방송기자상



'성남FC 광고후원금 뇌물 의혹 검증 연속보도'(원종진, 정반석, 고정현, A&T 하룡)가 제165회 이달의 방송기자상(취재보도 부문)을 받았다. 탐사보도부 끝까지판다 팀은 지난 2014~2017년, 성남FC가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광고 후원금 일부를 임직원 등에게 성과금 형태로 지급한 사실과 후속 의혹들을 내부 자료를 입수해 보도했다. 심사위원들은 "발견된 새로운 팩트를 바탕으로 뇌물 의혹에 대해 검증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시상식은 7월 29일(수) 방송회관에서 열렸다.

<두시탈출 컬투쇼>, <지선씨네마인드> 이달의 PD상



한국PD연합회 주최 제268회 이달의 PD상 시상식에서 SBS 프로그램 두 개가 상을 받는 기쁨이 있었다. <두시탈출 컬투쇼-전국투어 제주 특집 '우리들의 난리 블루스'(연출: 이준원, 임광현, 작가: 홍수정)는 라디오 음악 오락 부문 상을 받았다. 전국의 청취자를 직접 찾아가는 전국투어 첫 번째로 편성된 제주 특집이다. 심사위원회는 "두시탈출 컬투쇼"는 항상 신선하고 유쾌한 콘텐츠로 건강한 웃음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며 "지방을 찾아가는 작은 변화만으로 청취자들에게 완전히 색다른 즐거움을 안겨줬다"고 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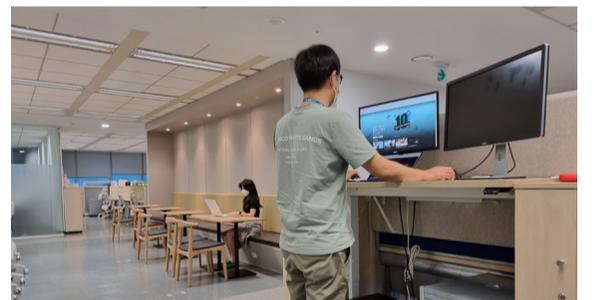
교양D스튜디오에서 제작하는 <지선씨네마인드> '영화 추격자' 편(연출: 도준우·길용석, 작가: 황별이)은 디지털 콘텐츠 부문 상을 받았다. 이 부문은 분기별로 1회 시상한다. <지선씨네마인드>는 <그것이 알고 싶다>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되는 뉴미디어 콘텐츠로, 범죄심리학자 박지선 교수가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을 범죄 심리학적으로 분석한다. 심사위원회는 "지상파 방송의 외연을 확장하고, 방송사 제작 뉴미디어 콘텐츠의 새로운 가능성과 바람직한 지향점을 선보였다"고 평가했다. 시상식은 8월 3일(수) 방송회관에서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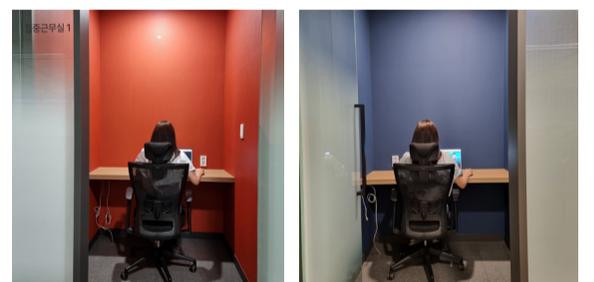
SBS I&M, SBSi로 사명 바꾸고 목동에서 새로운 출발

SBS I&M이 7월 25일부로 SBSi로 사명을 변경했다. SBSi는 1999년 8월 국내 최초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www.sbs.co.kr) 제공을 목적으로 SBS미디어그룹 내 IT 서비스 기업으로 설립됐고, 2009년 8월 SBS프로덕션의 콘텐츠 유통 부문과 합병하여 SBS콘텐츠허브로 이름을 바꿨다. 그 후 2017년 사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과거 SBSi가 담당했던 IT 및 온라인 서비스 부문의 분사를 통해 SBS I&M으로 재탄생하여 오늘에 이른다. SBSi 조재룡 대표는 "고객들에게 보다 직관적으로 회사의 역할과 기능을 인식시키고, SBS그룹의 디지털 전략 파트너로서의 비전과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자 SBSi로 사명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i'는 Internet, Interactive의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2000년 이후 그룹의 뉴미디어와 IT 전략 수행에 큰 역할을 담당했던 SBSi의 전통을 이을 뿐만 아니라, 그룹 내 IT 인프라 설계, 구축, 운영 역량을 보유한 유일한 조직으로서 SBS 미디어그룹의 디지털 전략 수행을 위한 전략 자산이라는 회사의 아이덴티티와 지향점을 전달하고 있다. 올해 SBSi의 전략 목표는 첫째, 홈페이지(SBS.CO.KR)의 기능 강화이다. SBS 브랜드 홍보, SBS콘텐츠 프로모션 등에 집중되어 있는 홈페이지 기능을 보다 강화하여 SBS의 모든 사업 프로모션과 이벤트까지 포함하는 SBS의 Home(홈페이지)으로 기능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를 넘어선 서비스 사이트 또는 비즈니스 사이트로의 발전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초부터 ALL VOD 등 미디어서비스 확장을 위한 콘텐츠 기획과 개발을 계속하고 있고, 플레이어(Player) 기능 개선과 자체 개발한 디지털광고

플랫폼(ImAD) 고도화, 소셜 로그인 확대 등 SBS.CO.KR의 플랫폼 기능 강화 작업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 이 작업들이 마무리되는 내년 상반기 중에 SBS.CO.KR은 SBS 브랜드와 콘텐츠의 홍보 기능뿐만 아니라, SBS의 모든 콘텐츠를 소비하고 즐길 수 있는 미디어서비스 기능을 제대로 갖춘 플랫폼이 될 것이고, 이에 발맞춰 새로운 브랜드로 이름도 바꾸어 명실상부한 SBS의 미래 플랫폼으로 재탄생할 것이다. 둘째, SBS 디지털 인프라 전문조직으로 역할 확대이다. 그룹 내 사업의 핵심인 콘텐츠 유통과 광고의 디지털 인프라인 SBS의 OPS(CMS), SBS M&C의 메소디아(TV광고플랫폼), SBS의 IMAD(온라인 광고 플랫폼)에 대한 시스템 고도화와 통합 운영에 대한 시너지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셋째, 자체 디지털 사업 개발을 통한 신규 사업 확장이다. SBSi가 보유한 디지털 인프라 자산을 활용하여 다양한 신규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SBS 홈페이지 서비스 경험을 활용한 SaaS형 OVP(Online Video Platform) 구축 사업, 방송사 최초 클라우드 컴퓨팅 경험을 바탕으로 한 MSP(Management Service Provider: 클라우드 기반 온라인 시스템 컨설팅 및 관리) 사업, 고릴라 앱 서비스 경험을 통해 론칭한 음성 플랫폼(티팟) 사업 등 다양한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SBSi는 사명 변경과 함께 계열회사들과의 긴밀한 협업을 위해 목동 SBS방송센터 17층에 새로운 동지를 틀었다. 새 보금자리는 블랙 & 화이트 톤으로 모던한 분위기이며, 직원들의 창의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스마트 오피스를 추구했다. 기존의 고정 좌석제를 폐지하고 자율 좌석제를 도입했으며, 업무 공



카페형 근무 좌석과 모션 데스크



1인 집중 근무실

간 외 1인 집중 근무실, 카페형 근무 좌석 등을 배치하여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개인 사물함도 전 직원에게 제공했다. 근무 형태에도 많은 변화를 주었다. 재택근무제 도입으로 IT 우수인재를 확보하는 데 경쟁력을 갖췄다. 재택근무 관리를 위해 근태관리 시스템('시프티')을 도입했으며, 이 시스템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재룡 대표이사는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동지에서 그룹 디지털 전략 수행을 위해 임직원들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